

코로나에 '주거빈곤층' 거리로 내몰릴 위기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에 저소득 가구, 쪽방촌 거주자, 노숙인 등 주거빈곤층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였다.

일 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감소하면서 당장 임대료를 내기 힘든 한계상황에 처한 가구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는 비단 저소득층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서울 종로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프리랜서 연극배우 ㄷ씨의 경우 평소 부족한 수입을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메우며 생활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아예 중단되고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없어지면서 한순간에 수입이 모두 끊겼다.

ㄷ씨는 "월세가 밀리면서 이미 보증금은 다 차감됐다"며 "복지센터 도움으로 제납 월세는 막았지만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에서 상경한 대학생 ㄴ씨는 자취방 월세만 매달 지출 중이다. 학교가 코로나19로 온라인개강을 하면서 학교 인근에 머무는 게 무의미해졌지만, 그렇다고 방을 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저렴한 학교 기숙사가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것도 학생들에게는 부담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긴급 주거대책을 수립하고

주거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5대 요구안'을 공개했다.

요구안에서 시민단체들은 한시적으로라도 임대료 동결과 함께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지 않도록 '계약갱신 보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경제 사정 변동에 따라 임대료 감액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도 실질적인 행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료를 유예하고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개발로 인한 명도집행 등 강제퇴거 금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숙인 등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보편적 주거권 확보 차원에서 주거급여 대상도 이참에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불안정한 이들이 실업 상태로 내몰리거나 소득이 급감하고 있다"며 "당장은 식비 등을 줄여가며 월세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곧 임대료 연체와 퇴거 위협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인구감소 가속화 4개월 연속 자연 감소

한국의 인구가 4개월 연속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51개월 연속 감소했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인구에 진입하면서 사망자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2,854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11.3% 줄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만5,419명으로 같은 기간 10.9%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인구의 자연 감소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 인구는 지난해 11월 1,682명, 지난해 12월 5,628명, 지난 1월 1,653명에 이어 지난 2월에도 2,565명 감소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과 2018년 12월에 인구 자연 감소가 발생한 적이 있지만 12월은 통상적으로 추운 날씨로 사망자는 많고 출생이 연초에 몰리는 경향이 반영됐다.

출생아 수는 지난 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51개월 연속 감소세다.

결혼 건수 역시 줄고 있다. 지난 2월 혼인 건수는 1만9,10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 늘긴 했지만,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혼인·이혼 통계의

특성상 지난 2월 신고일수가 윤년으로 지난해보다 하루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1~2월 전체 혼인 건수는 3만 8,9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해 감소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이혼 건수는 8,23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혼은 동거 기간 20년 이상에서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지난 2월에는 혼인과 마찬가지로 신고일수 증가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세 반등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결혼과 출산을 많이 하는 연령대의 인구 자체가 줄어든 데다가 최근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관계 당국은 코로나19 충격이 결혼·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출산율 감소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92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향(2021~2025년)'에서 인구 과체에 7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RE/MAX
DIAMOND
BEST REALTOR EVER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플러튼

50만불 내외 1300-1900sqft
대지 6500-9500sqft 다량 보유
전화 문의 주세요

부ENA팍

40-50만불 콘도/타운하우스
렌트 수입 아주 좋은 매물
다량 확보. 전화 문의 주세요

작은집, 단층집으로 옮기실 계획이예요?
아주 편안하게 다운사이징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전화 문의 주세요

Leah Ivy Chang

Realtor

The REALTOR You Can TRUST

지금 어려운 시기에 보다 더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드릴수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숏세일, 모디피케이션, 모기지페이먼트유예, 프라퍼티 매니지먼트 도와드립니다.

주택매매	새집분양
렌트 / 리스	학군상담
투자상담	숏세일
수입성/상업용 부동산	커머셜 / 사업체

Looking for the Right Agent for the Job of Selling / Buying your Home?



DRE Lic: 02086695

미국교육전문가
입시코디네이터
College Consultant

949.501.8555

Fax: 714.367.1399

LeachangRealty@gmail.com

6056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